

## 학부생을 위한 분야별 리포트 작성법의 성과와 전망

교육  
프로그램

글쓰기교실은 지난 4년 간 매 학기 리포트 작성법 코스워크를 운영하여 학부 학생들이 리포트 작성의 방법을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코스워크는 주제 선정과 아이디어 만들기, 핵심주장과 글의 구조 만들기, 문장론, 인용과 맞춤법 등으로 구성되어 리포트 작성의 일반적인 방법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들 일반적인 내용은 리포트 작성을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사전 지식이었다. 그러나 일반적인 내용만으로 다양한 전공 분야와 과제에서 필요한 리포트 작성 방법을 충분히 전달하기는 어렵다. 또한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연은 학생들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1학기에 분야별 리포트 작성법 워크숍을 시작하였다. 이 워크숍의 특징은 세 가지이다. 첫째, 핵심교양 과목에 초점을 맞추어 이 과목의 유형에 따라 6개의 워크숍을 구성하였다. 이들 유형은 예술, 문학, 역사, 철학, 사회, 자연이다. 둘째, 20명으로 정원을 제한하여 학생들이 리포트 작성 과정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셋째, 교양과목과 해당 분야의 글쓰기 과목을 여러 학기에 걸쳐 강의하시고 리포트를 지도하신 선생님들이 워크숍의 진행을 맡았다. 미학과의 전예완 선생님이 예술 분야를, 중어중문학과 김윤희 선생님이 문학 분야를, 서양사학과 박홍식 선생님이 역사 분야를, 필자가 철학 분야를, 기초교육원의 정병기 선생님이 사회 분야를, 김재영 선생님이 자연 분야를 맡으셨다. 이들 선생님은 각 분야에서 학생들이 공통으로 자주 범하는 문제의 사례와 개선 방법을

● ● ●  
김 준 성  
명지대학교 철학과 교수

전달하여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학생들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특히 글쓰기에서 범하기 쉬운 오류의 사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 사례들이 학생들에게 문제해결의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번 워크숍이 여전히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데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작성법 일반론에 대한 강조가 많은 워크숍은 보다 세부적인 내용과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문제점이 많은 리포트 뿐 아니라 많은 장점을 가진 리포트의 사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워크숍의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한 요일에 더욱 자주 워크숍이 열렸으면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수업과 워크숍의 시간이 겹쳐서 워크숍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걸림돌이 된 경우도 있었다.

현재 학생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는 리포트는 서평이다. 많은 강좌에서 서평 과제가 부여된다. 글쓰기교실은 그 동안 대규모 특강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서평 작성법을 안내하였다. 대규모 특강이므로 학생들이 개별적인 문제점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무엇보다도 수업 시간과 겹치는 학생들은 한 학기에 2번 열리는 서평 특강에 참석하기가 어려웠다. 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쓰기교실은 두 가지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분야별 리포트 작성 워크숍에 서평 작성에 관한 내용을 일부 포함시키는 것이다. 둘째, 서평을 주제로 다양한 분야별 리포트 작성 워크숍을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또는 격주로 글쓰기교실의 상담을 받는 연구원들이 진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들 연구원은 학생들의 서평 과제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내용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교실의 리포트 워크숍은 학생들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다. 강좌를 맡으신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리포트에 코멘트를 주는 등 교수자의 적극적인 지도와 초고를 미리 검토 받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태도가 병행될 때 학생들은 보다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